

우리는 이미 **변화의 길** 위 에 서 있습니다.

#2030 #입시경쟁 #사교육고통 #해결 #대중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대학서열해소 열린 포럼> '제3차 포럼' 예고보도(2020.11.16.)

11/17(화), 제3차 <대학서열해소 열린 포럼>을 개최합니다!

-주제: 대학서열해소를 위한 대학의 참여와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주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은 11월 17일 (화) 오후3시, <대학서열해소 열린 포럼>의 제3차 포럼을 '대학서열해소를 위한 대학의 참여와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동주최합니다.

지난 10월 20일 사교육걱정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공동개최한 제1차 포럼에서는, 지금까지 발표된 대학서열 해소 방안들을 살펴보고 대학입시와 연결된 대학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어떻게 대학서열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 네트워크에 포함되는 대학의 규모, 단계별 시행 방안에 대한 쟁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제1차 포럼 결과보도 보기: <https://stib.ee/1Cd2>).

그리고 11월 4일에 열린 제2차 포럼에서는 대학서열해소 방안과 입시 개혁이 어떻게 병행되어야 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일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면 동등하게 선발하여 배정하는 방향으로 평가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학 입학의 자격을 최소한의 대학 공부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할지, 대학네트워크의 정원에 맞추는 수준으로 할지에 대한 쟁점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제2차 포럼 결과보도 보기:

<https://stib.ee/fcf2>)

이번에 열리게 되는 제3차 포럼은 '대학서열해소를 위한 대학의 참여와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립니다. '대학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입시를 실시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을 보장해 준다면 대학 서열이 완화될지는 몰라도 대학의 학력 수준이 낮아질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대학네트워크의 대학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포럼에서는 대학네

트위크에 투입되는 재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학사운영과 교육의 질 관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논의할 것입니다.

또한 대학네트워크에 사립대학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도 중요한 논의 주제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은 사립대학의 비율이 80%가 넘고 수도권 사립대가 대학서열 구조에서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서열 해소방안에 사립대가 참여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사립대학을 공공재가 아닌 사적인 영역으로 인식하고 사립대학의 재정 운용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편이어서, 사립대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에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립대의 공공성을 높이면서 사립대학이 대학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일은 대학서열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대학서열해소를 일부 전문가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시민이 직접 나서서 포럼의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대학서열해소 열린 포럼>의 포럼위원회에는 처음 목표했던 인원의 두 배가 넘는 211명의 포럼위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3차 포럼 이후에 11월 21일에는 1~3차 포럼의 내용을 정리하는 포럼위원 종합토의도 진행됩니다. 또한 모든 포럼 과정을 마친 후에는 포럼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3차 포럼 역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포럼 장소인 사교육걱정 세미나실에는 발제자만 현장 참석하고, 포럼 전 과정은 유튜브로 생중계되며, 포럼위원들은 줌(ZOOM)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토의에 참여합니다. 사전에 포럼위원으로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포럼 참여가 가능하니, 대학서열 문제의 해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포럼 취재를 위한 언론 기자님들의 현장 참석은 가능합니다.)

■ 전체 포럼 일정

일시	행사명	세부 주제(포럼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전문가 패널
10/20 (화) 15:00	1차 개막 포럼 (박주민 국회의원과 공동주최)	대학서열해소를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환영사: 박주민(국회의원) -개회사: 정지현,홍민정(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김종영(경희대 교수) -반상진(한국교육개발원장)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김명연(상지대 교수) 시민 발언대
11/4 (수) 15:00	2차 포럼	대학서열해소는 입시 개혁과 병행되어야 하는가?	-강남훈(한신대 교수) -안상진(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 -전경원(하나고 교사) -김학윤(경기여고 교사) 시민 발언대

11/17 (화) 15:00	3차 포럼 (강득구 국회의원과 공동주최)	대학서열해소를 위한 대학의 참여와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환영사: 강득구(국회의원) -축사: 이원욱(국회의원)
			-임재홍(방송대 교수, 교육혁명포럼 연구위원장): 대학 공동학사운영 및 질 관리 방안 -김성수(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 입시성적순 서열화를 교육역량 서열화로 -홍성학(충북보건과학대 교수, 전 교수노조위원장): 대학체제 개혁과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 -임은희(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도입 방안 시민 발언대
11/21 (토) 10:30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위원 종합토의		-여는 강의: 김누리(중앙대 교수), 박주민(국회의원) 포럼위원 종합토의
11/30 (월) 11:00	포럼 결과 발표 기자회견		

2020. 11. 1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위원회부위원장 김태훈(02-797-4044/내선번호 501)

대학서열해소

열린 포럼

제3차 11월 17일 화요일 오후 3시

 온라인 생중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강득구TV 유튜브 채널 생중계**

대학서열해소를 위한 대학의 참여와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환영사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축사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제

- 대학 공동 학사운영 및 질 관리 방안 | **임재홍** 방송대 교수, 교육혁명포럼 연구위원장
- 입시성적순 서열화를 교육역량 서열화로 | **김성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
- 대학체제 개혁과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 | **홍성학** 충북보건과학대 교수, 전 교수노조위원장
-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도입 |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코로나19를 대비하여 발제자만 현장 참석하고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사전 신청한 포럼위원은 줌(ZOOM)을 통해 토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김태훈** 정책위부위원장 02-797-4044 (내선번호 501)



대학서열해소 열린 포럼 위원 2020. 11. 11 현재 211명

강민석 강성우 강승규 강영구 강유진 고경보 고유진 고지연 곽경애 구은정 구현주 구희현 권신영 권오현 권현수
 기아정 김경관 김경태 김계화 김고종호 김기수 김덕신 김도엽 김동은 김두형 김명희 김문희 김미라 김미선 김민애
 김상규 김선열 김설화 김성진 김수희 김시진 김영숙 김영주 김영현 김용성 김우일 김은영 김은선 김재우 김재은
 김정민 김종우 김준 김지연 김진혁 김진훈 김지희 김찬미 김철화 김태선 김태성 김태정 김태훈 김해인 김현경
 김형식 김해옥 김효근 김효순 김희경 나송이 나유진 남궁옥 류광일 류기락 류정하 문선중 민주희 박권 박민영
 박보영 박복남 박선영 박성주 박양숙 박양훈 박요섭 박은선 박정원 박주민 박지연 박찬주 박태연 박혜숙 백영국
 백선숙 백성주 백승미 서배성 서원빈 서정우 서중학 서지원 서한별 성희선 손고운 손수경 손승현 손연주 손정안
 손준현 손혜진 송미소 송선영 송이랑 송은미 송진원 송화영 송환웅 신옥진 신진영 심우기 안백함 양경원 양승남
 양희성 양희창 양익환 오미경 오옥분 옥선희 용은중 유영의 유정혜 윤경미 윤예성 윤지상 윤혁 은수진 이경재 이경태
 이경화 이다움 이동우 이동희 이동흔 이수연 이신욱 이연옥 이예지 이영렬 이원미 이윤경 이은산 이은영 이은진
 이인선 이재영 이재호 이진희 이현기 이현주 이형민 이혜주 임재택 임재홍 장범준 장상준 장승진 장윤석 장진수
 장현성 장형진 장희재 전대희 전종호 정문기 정민경 정용시 정유경 정윤리 정재영 정진화 정태신 조남일 조선희
 조윤경 조윤숙 조정아 조창완 조혜연 조혜정 진성애 진수정 채아름 최금자 최상권 최선진 최원형 최우미
 최이현 최재훈 최택진 최형록 추시현 하수현 한노티 한성준 한지순 한지유 한지혜 허익현 홍성미 황인각 황일식